

다산포럼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조교수

지난여름 태풍이 포항을 지나며 발생한 재해는 한반도 역시 기후 위기에서 유발되는 재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이제 점진적으로 혹은 블랙 스완과 같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돌발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기후 위기는 실제적인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시장 규범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중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의 질서를 만들고 있다.

기후 위기에 더해 신냉전 등으로 인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의 세계화는 제동이 걸리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전기차 관련 보조금 사태 역시 신기후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자유 무역 관행을 벗어나 세계 가치 사슬 자체를 내수화해 가는 과정에서

기후 위기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생긴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그동안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신기술 및 산업의 전환은 한국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을 야기할 것이다. 일단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격적으로 이행한다면,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라인 뿐 아니라, 수많은 부품업체, 정비업체 등 유관 업종 종사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기차에는 부품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LPG, 휘발유 주유소 산업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심지어는 주유소 주변에 위치했던 기사 식당과 세차장들 역시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지구상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해 중 차원의 멸종이 발생했을 때, 공룡들은 사라지고 작은 포유류들이 틈새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충격에 공룡과 같은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 중 누가 더 취약할까? 대기업의 시장 독점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기존의 화석연료 업자들, 중소하청업체,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전환, 업종 전환 인센티브 등 출구 전략은 준비되고 있을까?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은 배터리와 그린 산업의 신기술을 위해 엄청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받아 전환 경제로 이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환의 시간표는 자신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전경련은 EU에 서한을

보내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를 요구하고,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와 원전 에너지 활용 확대, 그리고 시장에서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기업들은 국가 R&D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룡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며 피해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하청 노동자,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기후 위기 대비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필연적인 피해와 고통에 대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을까? 석탄산업, 원전산업 등 에너지 전환을 경험한 독일에서는 전환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의 타협을 통한 균형과 적절한 규제 및 보상을 제시해 왔다고 한다.

정부는 대기업의 목소리뿐 아니라,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탈탄소 전환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민주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투명하게 밝히고 정당한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청춘특특



박원빈 광주대 스포츠과학부 4년

소통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의미다. 광주대학교에서 최근 코로나19로 멈췄던 축제인 대동제가 2년 만에 열렸다.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과 지역에서 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운 축제 소식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에 학생들과 지역민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축제로 재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축제는 중요한 이벤트다. 심지어 광고·홍보·이벤트와 관련된 전공 수업에서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기도 한다. 과거의 축제는 '놀이, 먹고, 마시고' 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됐다. 학교 축제에서도 주류와 안주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자리도 깔아줬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과 지역민들이 축제를 찾아왔고, 성공적인 축제로 기억에 남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통과 문화의 잔치이다.

축제,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하다

MZ세대들도 '놀이, 먹고, 마시고'를 탈피한 축제를 선호한다. 분명 과거부터 이어온 연예인 초청 공연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분명 슬픈으로 진행되는 축제는 지워져 가고 있다.

각 대학과 지역들도 관객과 소통하는 열린 축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 '학생 참여 축제' '어울림 한마당' 등 축제의 타이틀도 과거와 다르게 변모되고 있다.

광주대는 학생과 지역민 모두와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었다. 무섭고 어려웠던 총장님이 학생회와 함께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과거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인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관공차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신선하기까지 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빛 축제 공간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빛 축제는 2023년 1월까지 진행된다. 잔디밭 공간에 빛 터널과 색이 변화하는 LED 볼, 동물 조형물 등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분위기는 최고다. 많은 사람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하며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빛 축제 공간 조성은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광주대학교는 오는 31일 화요일 테이블 맞아 4개 단과대학이 빛 축제 공간에서 할로윈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

다.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축제는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축제가 건전하고 다양해지면서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축제를 바라보면, 아직은 연예인 초청 공연에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SNS에도 초청 가수가 누구인지, 어느 대학 축제가 더 유명한지 이야기하는 게시물이 많긴 하다.

언론에서도 대학 커뮤니티에서 등장한 "다른 대학은 ○○○를 섭외 했는데 이 비용이 들었다. 우리는 왜 그러냐" "B급 가수 섭외! 출연료 공개하라" 등등 연예인 공연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보도하기도 한다. 연예인 섭외 문제에서 학교와 학생회 간의 갈등도 생기기도 한다.

연예인 초청 공연에 긍정적인 생각도 있다. 학생들의 흥미 및 참여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즐겨워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축제를 준비하는 총학생회는 항상 연예인 초청에 항상 고민이 많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의 의미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에 멈추지 않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간다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문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고



안수자 동화작가

3년 전, 두 언니와 함께 고창에 3000여 평의 농지를 마련했다. 농지에 아스파라거스, 더덕, 땅콩 등을 심어 놓고, 평일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만 모여서 농사를 짓는다. 휴자는 주말농장 정도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인들과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으니, 어설피지만 우리는 진짜 농부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 주말만 되면 시끌벅적해진다. 여느 시골처럼 우리 마을도 90% 이상이 일흔이 넘는 분들이고 그중 반은 여든 살이 넘는 어르신들이다. 특히 우리 옆집에 사는 노부부가 가장 고령자인데 아흔을 바라보고 있으며, 부인은 중증 치매 환자다. 할머니는 매일 우리 집 앞 골목을 유모차를 밀고 오르락내리락하며 운동하는데 우리를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소?" 물으면 "광주에서 왔어요" 우리도 똑같이 대답한다. "오메, 지비가 육보요. 아

제멋대로 보고 듣는 사람들

가씨가 이렇게 와서 도와 주니 참말로 고맙소. 누가 이리 해 주간디, 지비나 된 게 이렇게 해 주제." 할머니는 고맙다며 활짝 웃는다. 우리는 이렇게 주말마다 똑같은 대화를 셀 수 없이 반복한다. 아마도 우리가 전에 살던 사람을 도와 주러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데도 할머니는 늘 우리한테 고맙다니 우리가 더 고마울 일이다.

한 번은 예초기를 메고 있는 남편을 보고 할머니가 말을 걸어 왔다. "뭘 하고 오시오?" 발두렁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고 오는 길이었다. 남편은 할머니의 색다른 질문이 반가워서 풀을 베고 온다고 유쾌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몇 번을 되물었다. "풀 베고 온다고요." 남편이 할머니 귀에 대고 큰소리로 대답하자 그때야 할머니 얼굴이 환해지며 "아~ 풀약하고 왔구만"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할머니가 잘 못 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시골에서 논두렁 발두렁 풀을 베는 것은 비상식적이 일이다. 제조제를 뿌리는 게 시골에서의 상식이다. 그러니 할머니는 상식과 다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른 어르신들 또한 우리가 밭에 난 잡초를 뽑고 있으면 혼신을 꼭 쉬며, 풀약을 하면 될 일을 왜 그리 미련스럽게 구느냐며 진정 안타까운 표정으로 우리를 걱정한다.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잡초를 뽑는 일은 정말 힘들다. 제조제를 하면 쉽고 편하다는 걸 우리도 잘 안

다. 실제로 진지하게 농약을 할까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우리는 몸이 편한 것보다 마음이 편한 쪽을 택했다.

뉴스를 보며, 뉴스에 달린 인터넷 댓글을 보며, 정치 유튜브를 보며 옆집 할머니와 시골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갈수록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줄고, 들어 달라는 사람들과 판을 치는 세상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막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꼴이라니. 어떤 말이든, 어떤 사건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고, 보고, 쓰고, 말하는 사람들로 넘쳐 나는 세상이다.

분명 옆집 할머니처럼 귀가 어두운 사람도 아닐 텐데. 그나마 옆집 할머니는 누구를 보든 어떤 일을 접하든 늘 고맙고, 예쁘고, 좋은 사람으로 일관되게 해석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늘 한 쪽 편에서 답을 정해 놓고 기사를 쓰는 일부 기자,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귀 막고 눈 감고 갖은 욕설로 반복하는 사람들.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알려 하지 않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모른 척,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금빛 배지를 단 떼쟁이 어른들.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 너희도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외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까?

社說

광주 메타버스 콘텐츠 부실... 'AI 도시' 맞나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메타버스(Metaverse) 정책이 콘텐츠 부실과 컨트롤 타워 부재로 걸리고 있다. 광주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했지만 콘텐츠가 허술하고 담당 부서는 물론 향후 활용 계획조차 없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유사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말한다. 이용자가 아바타(Avatar: 가상 자아)를 내세워 현실처럼 활동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빛고를 광주시청 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메타버스 내 민원고객봉사실은 책상도 없는 빈 공간이다. 오픈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총방문객은 460명으로 하루 여섯 명꼴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메타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오픈 10개월째 총방문객 수가 2770명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플랫폼에 내부 탐방이나 미션 수행 등 일부 콘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흡인력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메타버스를 총괄하는 부서조차 없다 보니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콘텐츠까지 부실해지고 있다. 광주 복구의 경우 공무원 한 명이 수개월 동안 스스로 공부해 메타버스 맵을 제작·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지역 공공 기관은 인천 서구의 '청라국제도시 메타버스'와 '제주도 성산일출봉 메타버스'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천 서구는 광주시와 같은 시기 메타버스 공간을 열었음에도 접속자 10만 명을 넘겼다. 이들의 성공 요인으로는 깔끔한 맵과 경쾌한 음악, 섬세한 그래픽, 다양한 즐길 거리 등이 꼽히고 있다.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공간 구축과 운용,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메타버스 산업의 토대를 내실 있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급등하는 농지 임차료 제어 장치 마련해야

최근 4년 사이 전남의 농지 임차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값이 하릴없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농도 전남의 쌀 생산 비용은 갈수록 급등해 농민들이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잇그체 공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쌀 생산 비용은 10a(1000㎡)당 77만 7358원으로, 2017년보다 20.9%(13만 4438원)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전국 평균(14.6%)을 상회하며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의 쌀 생산비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전체 비용의 36.3%를 차지하는 농지 임차료(토지 용역비) 상승 때문이다. 전남의 평균 농지 임차료는 10a 기준 지난해 28만 2029원으로, 4년 전보다 28.1%(6만 1825원) 인상됐다. 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전남의 농지 임차료가 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3.5%, 2020년 36.2%,

2021년 36.3%로 매년 커지고 있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 속에 농자재와 면세유, 인건비에 이어 농지 임차료까지 급등하면서 농민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 수탁 사업' 임차료 계약금은 정해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한데 임차료 상한이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변 지가가 상승하면 농지값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전체 농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급격한 임차료 상승이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으로 논임대료와 쌀값 사이에 큰 격차가 생겼다. 따라서 쌀값 및 생산비와 연동해 임대료 상한을 결정하고, 계약 기간을 확대하는 등 농가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시진핑 중국 주석의 '1인 천하' 장기 집권 체제가 열렸다. 지난 23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됐다. 또 7인으로 구성되는 중국 최고 지도부(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시 주석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진출, 그동안의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되고 강력한 진정 체제가 구축됐다. 시 주석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가 주석 3연임을 확정하며 당·정·군 '3관'을 완전 장악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열린 18차 당 대회에서

을 보였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 시스템 부실 등으로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신장·티베트 지역의 인권 탄압은 널리 알려진 문제다. 여기에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국제 사회의 견제만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의 무력 시위는 아시아 국가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

결국, 시 주석이 중국의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중국

열어 가기 위해서는 패권주의적인 '중국몽'(中國夢·중화 민족의 위대함)에서 탈피, 자유

·민주·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북한의 핵 실험을 막는 길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풀어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대국(大國)의 지도자로서 국제 평화를 위한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담부, 문화부, 예향부, 사진부, 체육부, 경영지원국, 기획관리국, 디자인실, 서출사, 문화사업국, 업무국, 서울지사,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